

ARTISTS

박용인 / 박진흥 / 마우리치오 카텔란 / 페터 바이벨 / 추수



표현하는 자로서의 본분 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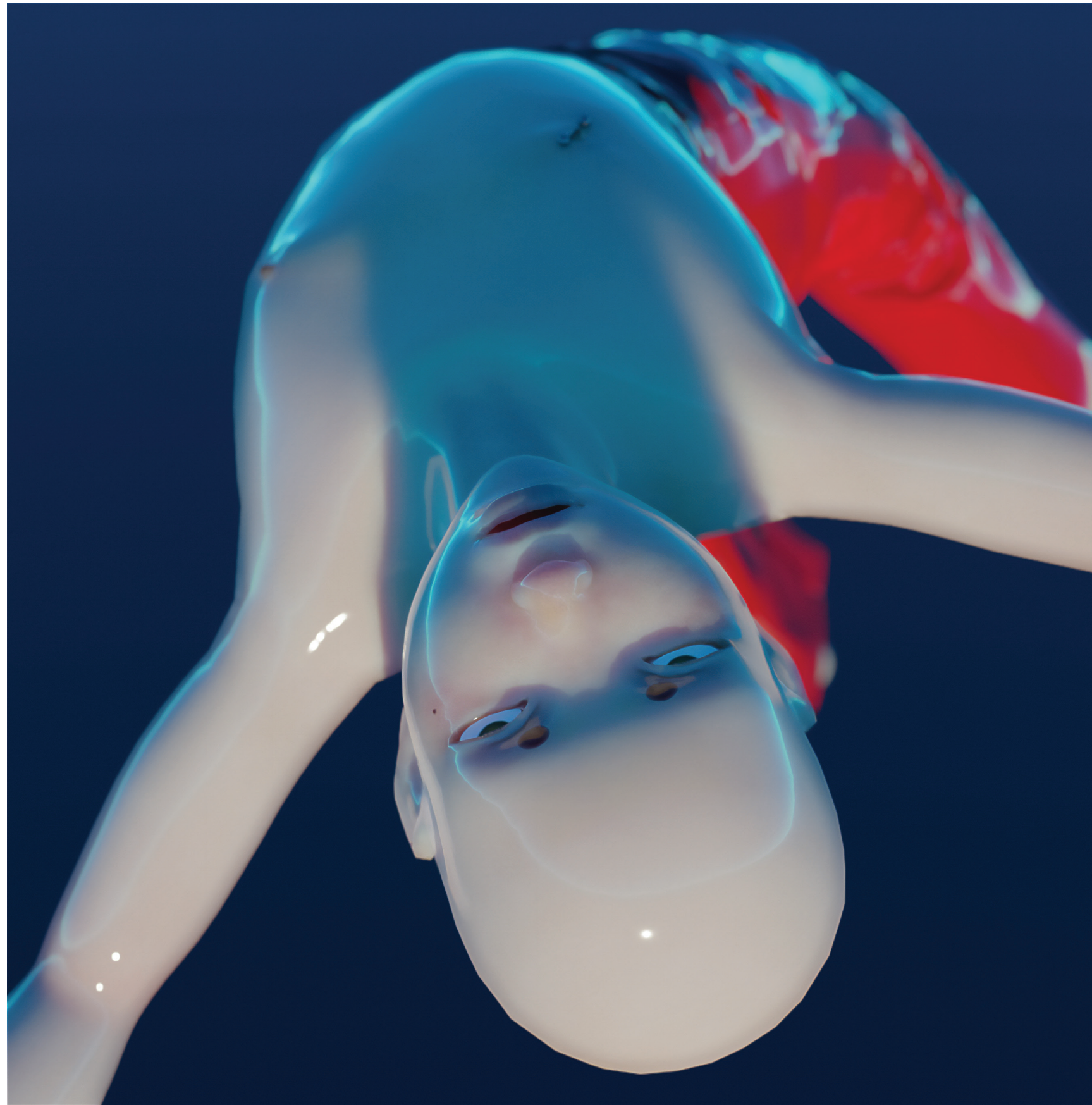
인공지능-사이보그 에이미가 공중에서 두 발로 견고하게 선 채 부유한다. 푸른 허공 속에서 위상이 고정된 채, 무한히 추락하고 떠오르는 에이미. 각양각색의 플랫폼을 오가며 다양한 직업으로 활동하는 에이미의 모습은 결코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에이미는 딱히 그녀의 인간형-자식으로만 머무를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화면 너머를 향한 이미지

추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세상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미디어를 집요하게 모색해왔다. 2018년 이후, 작업에서 디지털 렌더링 관련 기술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이로부터 기인하지만 추수 작가의 세계를 일부 미디어로 한정 지으려고 할 때 다소 복잡한 사정이 드러난다. 오히려 작가는 박근혜 정부 탄핵 시위 저변에서 만연했던 여성혐오의 상징물인 ‘생수통’을 들고 물을 나눠주거나(<성수통>, 2016), 감염병에 대한 방역 정책이 소통의 직접적인 방해물로 작용하는 상황을 빗대는 공연을 열기도 하는 등(<Pandemy Concert>, 2021) 꾸준한 실천과 퍼포먼스로 허상에 가까웠던 선언에 적극적으로 부피와 무게를 불어넣었다. 추수는 본격적인 활동 전부터 게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게임을 섭렵한 작가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3D 아트워크가 지닌 미감에 친숙함을 느끼고 본연의 의도를 가장 잘 살려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 3D모델링을 활용했다. 하지만 추수의 작업 세계는

컴퓨터 속 모호한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추수의 메시지는 망막에 침투하는 블루라이트처럼 현실의 우리에게로 돌진한다. <슈투트가르트의 조신한 청년들>(2018)과 <누가 미술관을 지키는가>(2019)에서는 VR기술과 디지털 스캐닝을 활용하여 주변 인물의 방을 관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미술관 관리직원을 가상의 미술관에 재배치하여 성별, 권력 간에 작용하는 사회학적 지형을 뒤집어 놓는 실험을 진행했다. 급기야 그가 꿈꾸던 재생산에 대한 열망 혹은 불가능성을 반영한 <슈뢰딩거의 베이비>를 통해 추수는 허구의 아이를 가짐으로써 가상과 현실의 위계를 흔들기 시작한다. 작가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디지털 자궁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듬마저 흉내낸다. 모니터 속 아기는 작가의 심장박동 소리 안에서 무한한 생성과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그 모습으로부터 질문이 날아와 우리에게 쫓힌다. 과연 진짜 존재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The Cyborg Manifesto>, 영상, 사운드, 10분 41초, 2021



《가장 충실한 모독》 전시 전경 (Together Together), 2022



〈슈뢰딩거의 베이비〉, 3채널 비디오 설치, (차례대로) 〈4주〉 5분 25초, 〈8주〉 4분 11초, 〈16주〉 4분 19초, 2019~2020

물의 모습

작가는 고백한다. 그를 창조했지만, 처음부터 에이미의 엄마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마찬가지로 에이미는 자기 자신을 사이보그·사생이라 선언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태생적 뿌리와 같은 가족 신화에 깊은 균열을 낸다.

앞선 〈슈뢰딩거의 베이비〉에 등장하는 아기와 에이미를 동일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앞선 작품과 별개로 에이미는 본래 상업적인 목적 하에 설계된 엔터테인먼트의 비주얼 인간 인플루언서이다. 처음에는 철저히 노래하는 아이돌 여신으로 탄생될 예정이었던 에이미에게, 작가는 밤이라는 새로운 시공간을 선사한다. 그 결과 에이미는 자신의 부여 받은 ‘일’을 넘어 스스로를 사이보그라 선언하며 자유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낮에는 ‘일’로서 주어진 여성-인플루언서-여신의 본분을 수행하기 위해 틱톡, 제페토를 떠돌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팬을

향해 노래 부르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술잔을 기울이거나 자신의 연기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또 다른 구독자들과 소통한다. 에이미가 거주하는 ‘집’은 문도 벽도 없다.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에 정지한 채 에이미는 데이팅 앱인 틱톡에 뜬 비주얼 인플루언서들의 프로필을 무심히 스와이프하다 지쳐 잠들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타임라인과 미술관 디스플레이에 동시 존재하는 입체적인 자이를 지닌 에이미. 자연과 진화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탈피한 그는 소리 없이 모두의 예상을 배신하는 새로운 귀어로 거듭난다.

에이미는 흠으로 빚어지지 않았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탄생 신화에 따르면, 그는 물에서 태어났기에 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체계의 경계를 흐린다. 현재 에이미는 추수의 모니터 안에서 작가의 목소리를 빌려 움직이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 과정에서 추수는 에이미의 입을 빌려 뿌리 없는 가상의 신체와 이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공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토로한다. (〈The Cyborg Manifesto〉)

현실 세계의 우리는 신호와 관계없이 역할과 신체의 굴레를 부여 받지만 에이미의 세계에서는 그 부담감마저 무게를 잃는다. 작가는 그 지점을 짚어내면서도 에이미가 아직 인간의 형상을 닮았다는 점에 대해 말한다. “디지털 세계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형상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지요”. 에이미는 세면대 앞에서 자신의 모델링을 해체하고 구석구석 새로운 시선으로 훑어 내려간다. (〈The Melancholic Deconstruction〉) 어찌면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에이미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마저 정상성의 프레임 하에 정교하게 구현된 것일지도 모른다. 과연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에이미의 진정한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떤 형상일까.

선언으로 개입하는 예술

작업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활동반경을 넓히기 위한 추수의 선택은 독일이었다. 자본주의 저변에 자리 잡은 모순들을 유쾌하게 지적하는 크리스티안 안코프스키 교수의 작업관에 깊은



〈에이미의 배신〉, 액자에 프린트, 84x59.4cm, 2021



〈나는 이곳을 졸업하는 것이 부끄럽다〉, 설치, 300×400cm, 2022

감명을 받은 작가는 2017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교 입학에 결정했다. 그러나 입학 이후 작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린다. 당시 비EU 출신 대학생 등록금 인상이 논의되던 상황 속 학교가 위치한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서 독일 최초로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200만원가량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작가는 〈딕키스 월드〉의 이미지를 활용한 티셔츠 작업(<100개의 판매 = 1,500유로의 등록금>)으로 부당한 정책철폐를 위한 지지자를 모집했다. 이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국면을 마주한다. 재학 중 전 학기 등록금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등록금 면제에 대해 즉각 문의했지만 시 측의 결정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석연치

않았으나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작가는 학업에 정진했다. 그 결과 5년만에 졸업장을 받았지만, 여전히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정책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낀 추수는 졸업전시에서 새로운 시위성 작업 〈나는 이곳을 졸업하는 것이 부끄럽다〉를 선보인다.

이미 대학 내에서 에이미를 활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어, 추수는 넓은 광고판에서 발랄한 분홍빛 배경 뒤로 눈물 흘리는 에이미를 등장시켰다. 사람들은 가상의 인물인 에이미가 실제 현실에서 만연한 차별적인 정책에 반기를 들고 발화하는 모습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이 논쟁적인 작업은 대학 내에서 관련 정책과 작가의 실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촉발시켰다.



〈The Tinder〉, 영상, 사운드, 5분 40초, 2021



〈에이미의 배신〉, 액자에 프린트, 84.1×59.4cm, 2021

작가는 이렇게 가상 이미지가 현실의 문제에 개입을 선언하는 지점을 고안하여, 줄곧 이어온 표현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직관적인 동기와 집요한 추진력으로 활동을 이어온 추수는 예술의 힘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빛나는 가치로 기능할 수 있는 불편한 지점을 찾아내고야 만다. 추수의 언캐니한 세계 속 사이보그의 얼굴이 우리의 것보다 생기가 흐르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닐까. ㄷ



추수 작가

추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동대학원 예술학과 졸업,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교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2018년 독일에서 더 브로큰 갤러리(The Broken Gallery)를 시작으로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Together Together, Soma Art Space 700, 분더카머(Wunderkammer)등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시각)에 선정되었다.